



물가감시와 재무제표 분석



원재료가 전부는 아니다.



“원두값 2배 늘었지만 커피값 못 올려”...‘삼중고’ 겪는 개인카페

“개인카페는 무한경쟁 상태입니다. 원두값이 폭등하고 우유 등 재료값도 올랐지만, 경쟁이 치열해 커피값을 올릴 수 없어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거리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17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김인홍(50)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김씨는 **원두값 등 재료비 상승과 치열한 경쟁, 월 200만원에 달하는 높은 임대료**를 거론하며 “삼중고에 빠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다른 카페로 손님을 뺏길까 봐 커피값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대신 김씨는 부업으로 하던 로스팅 원두의 납품 가격을 올렸다. 그는 “로스팅 원두 납품 가격을 1kg당 3만원에서 3만5천~3만8천원까지 올렸다”며 “다른 자영업자들도 힘든 것을 알지만 버티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고물가 여파에 원두가격 폭등이 겹치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커피값을 5~15%(200~600원) 올리고 있지만, 컴포즈 등 저가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는 개인카페들은 선불리 가격 인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커피의 핵심 재료로 판매가의 약 10%를 차지하는 원두값이 최근 1년새 2배 가까이 올랐다. 식품산업통계정보를 보면, 커피원두 대표 품종인 로부스터는 지난 2월12일 톤당 5817달러에 거래돼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도 같은 달 3134달러에 견줘 85.6% 올랐다. 아라비카 원두도 지난 2월 기준 톤당 8873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4152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뛰었다. 로부스터와 아라비카 원두값은 6월 현재 톤당 4457달러, 7746달러로 다소 안정됐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5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두값 상승은 브라질, 베트남 등 주요 생산지가 지난해 가뭄 등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원재료가 전부는 아니다.



“원두값 2배 늘었지만 커피값 못 올려”...‘삼중고’ 겪는 개인카페

가격 인상 요인은 넘치지만 가격 인상에 나서는 개인카페는 드물다. 17일 방배동 카페거리 일대 개인카페 6곳을 돌아본 결과, 매장 커피가격을 올린 곳은 한 곳도 없었고, 2곳이 최근 포장해 파는 아메리카노 가격을 500원, 1000원씩 올렸다. 한 카페의 매니저 이아무개(37)씨는 “우리 카페는 저가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려 애초 포장 커피 가격을 낮게 잡았다. 원두가격이 크게 올라 더는 버티기 힘들어 포장 커피 가격이라도 올린 것”이라며 “대형 카페와 달리 원두를 소량 구매하는 개인카페들은 타격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종업원 고용 계획을 포기한 곳도 있었다. 지난 1월 개인카페를 개업한 맹승주(32)씨는 “초반에는 종업원을 고용할 계획이었지만 오른 원두값, 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현 매출로는 불가능”이라며 “카페를 유지하려면 사장이 더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가가 오르지만, 커피값을 올리지 못하면서, 카페들은 올해 들어 마진이 30%까지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원두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커피 원두 대신 허브·곡물 등 다른 원료로 커피를 만드는 대체커피 전문점이 등장하고 있다. 한 대체커피 전문업체는 “모든 원료는 스마트팜 재배 방식으로 생산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지속가능한 커피를 만드는 게 지향점”이라고 했다.

한겨레, 2025년 6월 17일



커피의 원재료 비중은?



23.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와 전기 중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재고자산의 변동	1,221,392	20,324,018
상품 및 원부재료 매입액	896,894,806	849,555,476
종업원 관련 원가	950,150,235	893,610,151
임차료	313,288,521	303,115,229
유형, 무형자산상각비	142,005,418	139,086,112
사용권자산상각비	106,254,984	105,013,094
소모품비	24,715,027	22,984,298
수도광열비	54,377,144	50,668,316
지급수수료	360,254,009	334,410,528
기타비용	60,148,030	70,996,209
합 계	2,909,309,566	2,789,763,431



물가 인상의 원인



기업의 수익 = P(가격) * Q(수량)

(-)기업의 비용 =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감가상각비 등 기타경비

(=) 기업의 이익

이를 달리 쓰면

(판매가격-원재료비 단가) * 수량 -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 기업의 이익

이론적으로는 원재료 단가가 인상되면 동일한 금액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면 기업의 이익이 유지되나, 현실적으로는 원재료 가격 이외에 인건비, 임대료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음.

재료비가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되는 인상요인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함.



배달비와 물가



<표 3-2 배달비에 따른 가맹사업자 이익 변화>

(단위 : 만원)

지역	배달비 없는 경우			배달비3천원			배달비+수수료 5천원		
	비비큐	비에이치씨	교촌치킨	비비큐	비에이치씨	교촌치킨	비비큐	비에이치씨	교촌치킨
전체	777	1,219	1,448	251	466	556	(100)	(36)	(38)
서울	933	1,403	1,787	296	574	743	(128)	21	48
부산	649	1,041	1,815	161	390	705	(163)	(44)	(35)
대구	565	1,149	977	100	420	313	(210)	(65)	(130)
인천	785	1,180	1,059	214	441	390	(167)	(51)	(56)
광주	737	1,673	1,103	229	753	373	(110)	140	(113)
대전	762	1,574	1,041	252	739	311	(88)	181	(175)
울산	570	1,022	1,958	116	389	857	(187)	(32)	124
세종	893	1,274	1,200	341	514	496	(27)	8	27
경기	958	1,278	1,540	387	513	690	7	3	123
강원	530	847	1,419	85	317	605	(211)	(37)	62
충북	637	1,188	1,496	211	512	662	(72)	61	106
충남	555	1,180	1,412	100	504	594	(203)	54	49
전북	696	1,100	1,525	205	453	622	(123)	21	20
전남	471	1,279	1,195	39	583	489	(249)	119	19
경북	500	1,010	1,459	61	384	577	(232)	(34)	(11)
경남	687	911	1,067	201	364	343	(123)	()	(140)
제주	462	1,170	1,713	25	438	702	(265)	(50)	28

배달 플랫폼의 급부상으로 인해 가격에는 배달비 등도 반영이 되는 상황임.



프랜차이즈와 물가



주식회사 앤하우스

(단위 : 원)

메가커피

과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I. 매출액(주식12)	495,993,066,613	368,366,543,137
V. 영업이익	107,606,068,840	69,388,679,381

주식회사 컴포즈커피

(단위 : 원)

과목	제 4 (당) 기	제 3 (전) 기
I. 매출액(주14,17)	89,718,140,885	88,861,597,480
V. 영업이익	39,962,439,618	36,683,505,601

가격의 인하는 일선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나 프랜차이즈와 같은 중간 업체들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음.

플랫폼, 프랜차이즈와 같이 변화하는 사업구조에서 물가분석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